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7. 9 통권 제33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統一經濟

9
1997
제33호

편집자의 글
경수로 착공을 남북한 협력 진전의 출발점으로 삼자.....2

초 점
독일 통일의 교훈과 대북 및 통일 정책 방향 • 김 욱.....4

특 집
김정일시대의 정책 전망
위기 속의 정치체제 변용과 전망 • 김성철.....12
북한 외교의 변화 전망 • 정규섭20
생존을 위한 경제 정책 변화 전망 • 박 진.....28

기획연구
김정일 정권의 권력 엘리트와 군부의
위상 및 역할 변화 • 최 성.....38

논 단
북한 경제의 실패에 대한 하나의 해석
- 지난 3 년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 백학순60
중국의 대북 전략 외교와 북중 경제 협력의
성격 분석 • 김정균 · 이태섭77

통일다리
신미리 애국열사릉 • 정창현.....97

북한경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현황(IV)- '전력' • 홍순직103

통일연구
구 동서독 통합과 금융 · 재정 변화 • 김영찬124

해외기고
한국은 독일 통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이정훈137

참관기
경수로 착공식 참관기 • 임을철150

통 제 33호
등록번호 라-8926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7년 9월 10일
편집 및 발행인 김광중
편집위원 장순원(위원장)
김정균 홍순희
오상교 이병두
이택심 이원호
편집주간 심재철 황동언
편집고문 장문숙
발 행 처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37-4065
F A X (02)730-1771
인 쇄 서울합류터인쇄사
대표전화 (02)836-0655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경수로 착공을 남북한 협력 진전의 출발점으로 삼자

지 난 8월 19일에 북한의 경수로 착공식이 있었다. 1994년 10월에 체결된 북미간 제네바 핵 합의 이후 2년 10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2003년까지 1,000 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를 북한에 공급하게 된다. 경수로 공사가 곧바로 남북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다양한 인적 교류 및 경제 교류의 물꼬를 열게 될 것이다.

이번 호의 '초점'에서 본 연구원 김욱 연구위원은 독일 통일의 교훈에 비추어 흡수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장기적 전략에 입각한 통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특집'은 김정일시대의 정책을 전망해보았다. 먼저, 민족통일연구원의 김성철 연구위원은 "위기 속의 정치체제 변용과 전망"에서 최근 북한체제의 위기 상황과 정치체제의 변용이 북한체제의 해체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나, 정치체제의 형태에 변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한편, 정규섭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외교의 변화 전망"에서 북한 외교는 체제 안정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에 부응하여 일정 부분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 기본 방향은 대미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주변 4국 활용, 경제 외교 활성화, 이중적 대남 정책 지속 등의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박진 연구위원은 "생존을 위한 경제 정책 변화 전망"에서 김정일은 부분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북미 관계 개선 및 북일 수교를 진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의도는 공식 승계를 기점으로 점차 표면화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기획연구'에서는 고려대학교 정치학 강사인 최성 박사의 "김정일 정권의 권력 엘리트와 군부의 위상 및 역할 변화"를 실었다. 이 글에 따르면, 현재 김정일 정권은 군부 위상 강화를 통해 체제적 안정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경제난 해소를 위해 실무형 테크노크라트를 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군부 위상 강화는 대중의 창의성 무시, 개혁·개방과의 모순, 민수·군수 산업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현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체계'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당·정 활동의 원상 복구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논단'에서 세종연구소의 백학순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의 실패에 대한 하나의 해석"에서 지난 3년 동안 북한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통합적 및 경제 리더

십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정일의 공식적인 권력 승계 이후 개혁·개방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글은 4者회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내년 출범하는 새정부가 유연한 대북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하여, 북한에 유리한 대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연구원의 김정균·이태섭 연구위원은 “중국의 대북 전략 외교와 북중 경제 협력의 성격 분석”에서 북중 경제 협력이 크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경제의 對중국 의존도가 증대되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함께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통일다리’에서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정창현 기자는 우리의 독립묘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신미리 애국열사릉”의 연혁과 애국열사릉에 묻힌 인물들을 소개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현황”에서 본 연구원의 홍순직 연구위원은 북한의 심각한 ‘전력’ 분야를 소개하였다. 이 글은 북한의 전력난 원인을 석탄과 수자원의 편중된 발전 구조와 공급체계의 불안,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감소에 있다고 보고, 북한 탄광의 공동 개발과 전력 계통 연결을 통한 시간대별·계절별 전기 교류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통일연구’에서는 한국은행 김영찬 조사역의 “구 동서독 통합과 금융·재정 변화”를 실었다. 이 글은 독일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재정 변화를 추적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금융 측면에서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기존 금융 기관의 개편, 북한 금융 기관들에 대한 평가 및 통계 정비, 금융 하부 구조 개선, 재정 측면에서 원활한 외자 도입을 위한 경제 체질 강화, 세금 부담의 공정성 노력, 북한 지역 투자 여건의 개선 등을 들고 있다.

‘해외기고’로 미국 하와이대 이정훈 교수는 “한국은 독일 통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서 독일식 통일의 경제적 이슈로 사유화, 화폐의 교환 비율, 임금 정책을 분석하면서, 남북한 통일을 전후하여 정부의 활동적이고 광범위한 역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호는 최근 관심을 모은 북한의 “경수로 착공식 참관기”를 특별히 실었다. 이번 행사에 기자단 일행으로 참석한 한겨레신문의 임을출 기자는 현지 상황을 소개하면서, 경수로 공사가 남북한 적대감 해소에 조그만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장승길 대사 일행의 망명으로 인해 4者회담과 남북 관계의 진전이 주춤거리고 있지만, 경수로 의 착공으로 남북한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1997년 9월

편집자